

석유협회 박은태 회장,

YTN “경제와이드”
대담 내용



- ▶ 일시 : 10월 24일(목) 17:30~17~40
- ▶ 진행 : YTN 유 현 주 앵커

1. 한국석유산업의 역할과 위치는?

-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경제의 기간산업 및 수입 대체산업의 핵심으로서 국내석유산업이 태동함.
 - 지난 40여년 경제개발 기간중 중화학공업에 역점을 둔 결과 선박 세계 1위,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산업이 세계 5위권내 진입. 그리고 세계 11위의 무역 국가로 성장함.
- 미국석유협회(API)에서 “석유는 산업의 동력이고 심장” 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이면에는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됨.
 - 앞으로 우리가 세계경제6강(G6)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 기반으로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2. 국민들은 높은 유류가격에 불만이 많은데...?

- 국내 휘발유 가격에는 약 68%가 세금임.

- 즉 소비자가격 1,267원(9월 기준) 가운데 세금이 859원이며, 공장도 가격은 343원에 불과함.
- 공장도 가격중에도 원유 등 원재료 비중이 약 80%(260원)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원유가가 10%하락해도 정유사 가격인하폭은 최대 26원이며, 이는 소비자 가격의 2%에 불과함.
- 휘발유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등이 부과되며, IMF이후 세금이 2배 가까이 늘었음.
- 또한 최근에는 경유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세금이 인상됨.

3. 정유산업이 위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 국내정유산업이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43조원으로서 국내총생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000년이후 약1조원에 달하는 경상적자를 기록함.
- 1997년 수입자유화에 의해 석유제품시장이 개방되고 불과 5년만에 수입품에 시장의 13%를 내주었으며, 관세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입품이 급속도로 국내생산제품을 대체할 것임.
- 이는 관세제도의 미비로 인해 고정비 부담이 없고, 덩핑시장의 국제제품 시장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비해 국내 생산제품이 가격경쟁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임.
- 현재 우리나라 정유5개사 중에서 그룹사를 제외하고는 경영권 해외 매각이나 법정관리를 받는등 존폐위기에 처해 있음.

4. 석유협회에서 원유관세 무세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 주요 석유소비국들이 수입 개방하는 경우에도 원유수입에는 1%이내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석유제품에는 최대 19배까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수급의 안보를 기하는 것이 세계적 관행이며, 이는 석유가 전략물자이기 때문임.
- 왜냐하면 국제석유제품 시장은 주로 잉여 제품을 처리하기 위한 한계시장으로서 국내 석유제품을 수입에 의존할 경우 석유공급의 안정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임.
- 1990년 걸프사태시에도 원유가격은 배럴당 37달러까지 상승하였지만, 석유제품(등유)의 경우 70달러까지 상승한 바 있음.
- 장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상 석유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소비지정제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음

- 더우기 우리는 총외채가 금년 8월말 현재 1천 296억 달러로 아직도 세계4위의 외채대국으로서 무역흑자는 중요한 정책과제임.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같이 수입자유화의 물결에 따라 굴뚝산업은 문닫고 무역상만 활성화되는 제조업공동화는 어느모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현상임.
- 미국, 일본 등 주요 석유 소비국들은 소비지정제주의를 채택하여 자국에서 쓰는 석유는 자국에서 정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형평성의 면에서도 철강, 커피원두 등 국내 비경쟁 원재료에 대한 일반적 관세율이 1~2% 수준인데 비해 원유에만 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함.



-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적정관세율 보고서”에서도 국민후생증진 효과, 생산 및 물가급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원유도입관세를 무세 내지 저율로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즉, 원유관세율을 인하 또는 무세화할 경우 포기되는 세수보다 더 큰 실질소득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 석유산업의 생산능력 확보는 국민경제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소비지정제주의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원유관세를 인하해야한다고 밝혔음.

5. 원유관세를 인하하면 세수부족이 따르지 않는지?

- 석유로 인한 세수가 연간 16조원에 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유무관세에 따른 세수감소(7000억원)는 미미한 수준이며, 향후 에너지 세계개편으로 석유세금이 크게 증가하여 2006년까지 추가 세수규모 14조 1,4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담배 세수가 3조6천억원, 주류가 2조5천억원인데 비해 석유는 16조원에 달

하는 효자품목임. 이러한 담세원천인 정유산업의 위기를 방치한다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할 것임.

6. 중동에서 전운이 고조되는 등 석유위기가 우려되는데 소요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석유공급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 미국에 의한 대이라크 공격의 전운이 감돌면서 작년에 배럴당 18달러 이던 유가는 이제 26달러에 이르렀고,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는 60달러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도 경제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석유산업에 대한 정책 전환을 모색하여야 함.

- 원유관세 인하등 소비지정제주의 정책기조를 강화시켜야 하며
- 전세계 매장량의 65%, 교역량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원유의 공급차질에 대비하여 미국은 중동을 대신할 원유공급자로 러시아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함. 우리나라도 원유수입량의 77%정도가 중동산 원유인데 불안정한 중동정세를 감안하면 원유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음.

※ 세계 석유매장량은 1조5백억배럴로 사우디가 2,681억배럴로 최대이며 이라크(1,125억배럴), UAE(978억배럴)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해외 유전에 대한 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자주개발 원유도입율을 현재의 2% 내외에서 일본 수준인 15%까지 높여야 함.

7. 정유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 경질화, 청정화 되고 있는 국내 석유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탈황등 시설고도화를 위한 설비투자를 확대해야함.

- 환경부는 현재 황함량 경우 430ppm, 휘발유 130ppm 수준을 3~4년내에 15~30ppm으로 낮추도록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약 7조원 이르는 재원이 소요됨.

○ 또한 국내 정유산업은 해외 유전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원유의 생산에서 정제에 이르는 수직일관화를 기하고, 종합에너지산업으로 발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할 것임. 📌

